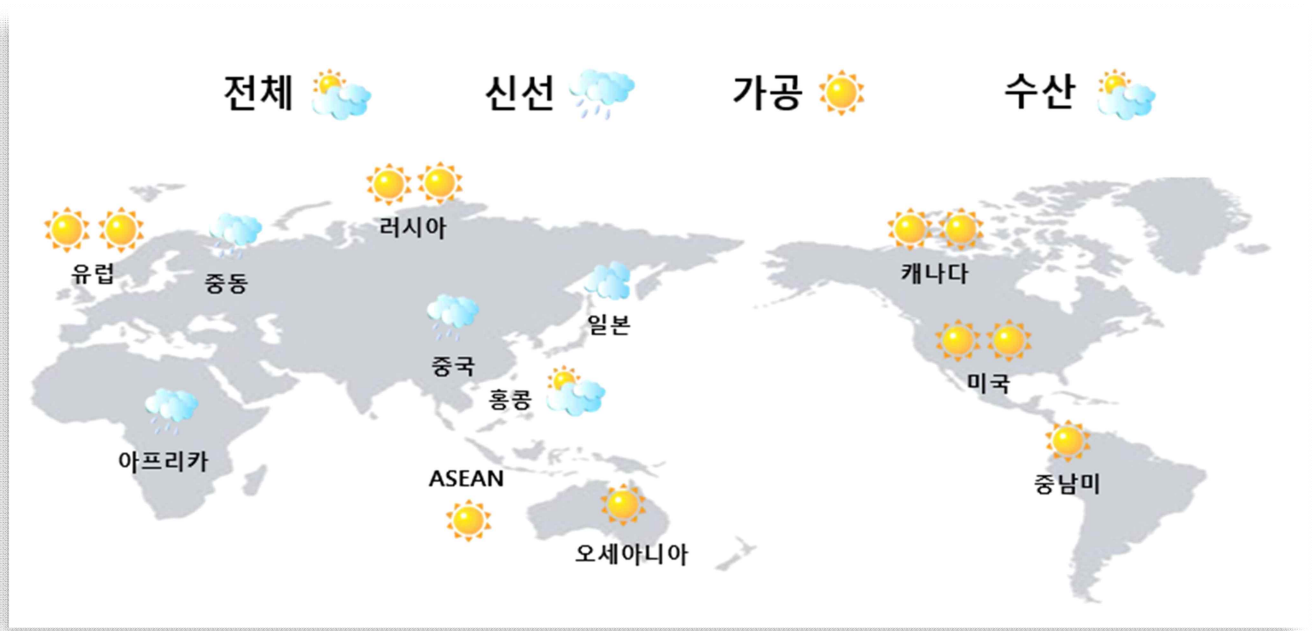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21호

I	일본 수출 고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II	한국산 참외·멜론 베트남 수출검역협상 타결	
III	'24년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 실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41.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신선 4.7억불(△7.0%), 가공 26.1(8.4%↑), 수산 10.3(2.6%↑) -

- '24년 4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4,109.0백만불
- (신선) 버섯류(13.3, 7.8%↑), 김치(57.3, 6.8%↑) 등 증가, 과실류(102.9, △7.1%), 채소류(108.1, △7.7%), 인삼류(72.5, △12.3%) 감소
 - (가공) 면류(465.7, 29.8%↑), 음료(211.5, 15.8%↑), 과자류(227.3, 9.9%↑) 등 증가, 낙농품(54.1, △4.1%), 주류(105.3, △18.2%) 감소
 - (수산) 김(332.7, 28.5%↑), 참치(210.1, 25.4%↑) 증가, 굴(30.3, △8.7%), 고등어(16.6, △42.8%), 명태(9.8, △51.9%) 감소

* '24년 4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3.8%증가한 2,200억불

< '24년 4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3년(연누계)		'23년 4월(A)		'24년 4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915.3	12,010.8	1,619.6	3,915.5	1,659.9	4,109.0	2.5	4.9
□ 농림축산식품	4,151.2	9,022.3	1,362.3	2,913.3	1,417.7	3,080.8	4.1	5.7
○ 신 선	497.7	1,486.5	190.9	502.2	174.6	467.0	△8.5	△7.0
○ 가 공	3,653.5	7,535.9	1,171.3	2,411.1	1,243.1	2,613.7	6.1	8.4
□ 수 산 물	764.0	2,988.4	257.3	1,002.2	242.2	1,028.3	△5.9	2.6

- 아세안(863.3백만불, 8.0%↑), 미국(652.3, 15.7↑), EU·영국(303.7, 30.2↑), CIS·몽골(183.4, 26.6↑) 증가, 중국(607.7, △12.3), 일본(672.0, △2.0) 감소
- (아세안) 인니 최대 명절 시즌 대비로 시즌품목(딸기, 음료 등) 중심 수출 증가
 - (미국) 유통매장(코스트코 등) 입점 가공식품(과자류, 라면, 쌀가공 등) 위주 수출 증가
 - (CIS) 현지 한류 인기로 유통채널 확대 및 김 수요 상승 등 수출 증가
 - (유럽) B2B 유통채널 확대 및 주요품목(라면, 김치, 음료 등) 수요 지속으로 수출 증가
 - (일본) 신선 및 가공 식품 가격 인상으로 농식품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수출 감소
 - (중국) 라면 수출은 증가세이나, 김 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수출 감소

< '24년 4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아세안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3.4월(A)	991.9	685.5	563.6	799.3	271.5	171.0	98.3	233.3	144.8	87.8
'24.4월(B)	903.4	672.0	652.3	863.3	280.5	190.4	105.6	303.7	183.4	109.7
증감률(B/A)	△8.9	△2.0	15.7	8.0	3.3	11.4	7.4	30.2	26.6	24.9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121호

농진청 이슈



일본 수출 고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 2023년 일본 수출량(고춧가루 등 가공품 포함): 78만 6,330kg, 472만 1,751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 일본 통관 검사 비율: (통상) 5% → (1회 위반) 30% → (2회 위반) 100% 전수검사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할 때 테부펜피라드를 사용해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수검사 명령이 해제되면서 일본 통관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과 사용 방법을 포함한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전문가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21호

식물검역 이슈



한국산 참외·멜론 베트남 수출검역협상 타결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4월 25일(목)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 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24년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4.5.20~5.30일 11일간 김천(검역본부 소재), 창원에서 ASEAN 국가 등 개도국 11개국으로부터 식물검역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사업이 진행되었다.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은 '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번 연수사업에서는 한국의 식물검역시스템 중 훈증 소독 처리기술에 대한 강의 및 실습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